

6연전 걱정 없다... KIA 마운드 '청신호'



지난 7월 31일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KIA 타이거즈 김기훈이 눈부신 피칭을 선보이며 마운드의 조커로 떠올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삼성전 3이닝 무실점 김기훈 순위 싸움 조커 부상 '퇴원' 네일, 실내 운동 시작...가을잔치 전망 밝혀



우승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주말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빅매치'의 승자가 된 KIA는 이번 주 6연전 강행군을 시작했다. 잔여경기 일정에 따라 삼성은 목요일인 5일 휴식일을 보내지만 KIA는 6연전을 소화해야 한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상승세의 마운드가 눈길을 끈다. 일단 김기훈의 반등이 반갑다. 올 시즌 초반 구위·스피드 저하로 고민했던 김기훈은 지난 7월 31일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뒤 10경기에서 12이닝을 소화하면서 2.2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그는 0.178의 피안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일 삼성전에서는 3이닝을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역전승의 발판이 됐다. 김기훈은 2022시즌에도 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이끈 마운드의 조커였다. 김기훈은 이 해 중반 상무야구단에서 전역해 5경기에서 인상적인 피칭을 하며 뒷심 싸움을 이끌었다.

올 시즌에도 김기훈은 막판 순위 싸움의 조커로

떠올랐다. 김기훈은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트레이드 애슬레틱에서 '맞춤형 과외'를 받았다. 이곳에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훈련법 등을 배운 그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법을 배웠다.

"직구 던지는 각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던질 때 골반이 일찍 일어서면서 힘이 분산된다고 이야기해줬다"며 트레이드 애슬레틱에서의 훈련을 이야기했던 김기훈은 다양한 성공사례와 풍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폼을 찾고 루틴을 만들었다.

변화를 시도한 그는 무엇보다 '자신감'으로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부진으로 올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만큼 김기훈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던지자"라는 마음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3-5로 뒤진 5회 출격했던 김기훈은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던 7회말에도 흔들림 없이 공을 던지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동점 상황을 생각 안 했다"는 김기훈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후회 없이 던지자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한다. 준비를 잘 해왔다"고 달라진 자신감을 이야기했다.

이범호 감독도 김기훈의 활약을 반겼다. 이범호 감독은 "기훈이한테 가장 바랐던 부분이 2-3이닝 던져주는 것이었다. 2이닝 정도를 잘 던져주면, 더 길게 던질 수 있는 선수로도 할 수 있다"며 "대구에서 3이닝은 컸다. 본인이 더 좋은 위치에 가서도 잘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기훈의 넓어진 활용도를 이야기했다.

에릭 스타우트도 다음 등판을 기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스타우트는 지난 2일 삼성 박병호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으면서 KBO 첫 등판에서 4이닝 5실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과정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범호 감독은 "구위는 괜찮았던 것 같다. 대구 야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야구장이라 다음 던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선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구위나 구종은 안정적이었던 것 같다. 공 자체도 힘이 있어 보였다. 체인지업도 던지고 구종도 맞고 나름대로 괜찮았다. 더 좋은 피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임스 네일도 강한 의지로 복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포스트 시즌 전망을 밝혔다. KIA는 3일 LG와의 경기에 앞서 "네일이 지난주 금요일 퇴원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왔다. 오늘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실내 운동 위주로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병원에서든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네일이 '가을잔치'를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

'투혼의 에이스' KIA 네일, 8월 MVP 후보에

3승·평균자책점 0.70

'투혼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사진)이 KBO 리그 8월 월간 MVP에 도전한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8월 월간 MVP 후보로 KIA 네일과 함께 두산 김택연, 삼성 원태인, 한화 박상원(이상 투수), LG 오스틴, KT 김민혁, 롯데 손호영, 삼성 구자욱(이상 야구)이 선정됐다.

올 시즌 KIA 에이스 타이틀을 차지한 네일의 활약은 8월에도 이어졌다. 13일 고척 키움전부터 24일 창원 NC전까지 16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인 그는 5경기에서 나와 3승을 올리면서 팀 내 최다인 12승을 기록하고 있다. 8월 '0.70'으로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네일은 부상을 당한 24일 NC전에서도 5이닝을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프로 첫해 두산의 마무리 자리를 차지한 '슈퍼 루키' 김택연은 8월 9경기에서 최다 세이브 공동 1위(6세이브)에 올랐다. 특히 1점 차 상황에서 4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강심장'의 면모를 보였다. 27일 창원 NC전에서는 17번째 세이브를 기록, 2006 시즌 롯데 나승연이 장식한 고졸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18년 만에 갈아치웠다.

원태인은 8월 5경기에서 4승을 수확하면서 삼성



시즌 13승을 수확한 그는 데뷔 후 첫 다승왕에 도전하고 있다. 한화 박상원은 무실점 투구로 8월 '미스터 제로'가 됐다. 14경기에서 나와 15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한 박상원은 1승 1세이브 6홀드를 수확했다. 한화의 필승조로 자리 잡은 박상원은 홈드 부분 공동 2위에 오르면서 한화의 막판 순위 싸움을 이끌고 있다.

'2년 차' LG 오스틴은 8월에 나온 24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홈런'을 장식하는 등 9홈런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타율 0.367, 36안타(3위), 22득점(공동 3위), 35타점(1위), 장타율 0.745(1위), OPS 1.160(1위)으로 해철사의 모습을 보였다. 24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LG 외국인 타자 최초로

의 단독 2위를 이끈 주역이다. 5경기에서 평균 96개의 공을 던진 그는 2일 대구 SSG전에서는 완투승도 기록하면서 이닝 부문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또 8월에 사사구를 단 1개만 남기면서 WHIP(0.74) 1위다. 올 시즌 30홈런-100타점을 장식했다.

김민혁은 KT의 타선의 전면에 서서 82타수 40안타, 타율 0.488로 타율과 안타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15일 대구 삼성전부터 22일 수원 키움전까지 6경기 연속 멀티 히트 이상 활약을 한 그는 8월 한 달 13번의 멀티 히트 이상 경기를 만들었다. 또 8월 유일하게 5할이 넘는 출루율(0.532)도 달성했다.

17개의 홈런으로 팀 내 최다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 손호영은 8월에만 8차례 그라운드를 들었다. 타율 0.400(2위), 23득점(2위), 38안타(2위), 장타율 0.716(2위), OPS 1.130(3위) 등 주요 공격 지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타선의 핵 구자욱은 장타 생산 능력과 뛰어난 선구안으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8월에 84타수 33안타, 타율 0.393(공동 3위)을 기록했다. 33개의 안타 중 10개는 2루타로 장타율은 0.655(4위)를 찍었다. 또 타율 상위 10명 중 가장 많은 15개의 볼넷을 얻는 등 0.485의 출루율을 기록, OPS 2위(1.140)에 올랐다.

한편 KBO 리그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 출신 중학교에는 해당 선수 명의의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 경기 도루 3개...50-50 성큼

홈런 44개-도루 46개 기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초의 50홈런-50도루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빠른 발로 전인미답의 경지에 가까워졌다.

오타니는 3일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볼넷 2개와 득점 2개를 곁들였다. 오타니의 시즌 타율은 0.292, OPS(출루율+장타율) 0.993이다. 여기에 이날만 3개의 도루를 추가해 시즌 46도루가 됐다. 홈런 44개-도루 46개인 오타니는 남은 24경기에서 홈런 6개와 도루 4개를 추가하면 '50-50클럽'에 가입한다.

오타니는 1회 단타를 치고 출루한 뒤 후속 타자 무키 베츠의 병살타로 득점하지 못했고, 3회에는 무사 2루에서 내야 땅볼로 진루타를 쳤다. 4회 2사 3루에서 볼넷을 고른 오타니는 포수의 견제가 어려워 1루 주자의 도루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1, 3루 상황에서 2루를 홈쳐 시즌 44호 도루를 쳤다. 7회에는 1사 후 단타를 치고 출루한 뒤 연거푸 2루와 3루 도루에 성공해 단숨에 45, 46호 도루 고지를 밟았다.

오타니는 지난달 4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로 한 경기 3도루에 성공했다. 이후 오타니는 프레디 프리먼의 외야 뜬공 때 홈을 밟아 득점했다. 오타니는 8회 2사 후 볼넷을 얻었고, 베츠의 2루타로 다시 홈까지 달려 또 득점했다. 9회 마지막 타석은 삼진으로 아웃됐다. 다저스는 애리조나에 11-6으로 승리해 전날 3-14 대패를 설욕했다. /연합뉴스

오타니, 뭘 못하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2일(현지시간)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서 8회 무키 베츠의 타구에 득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7승 세플러 올 수입 '833억원'

한 해 수입 1위는 오타니 '939억'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 시즌을 화려하게 마친 스킷 세플러(미국·사진)가 광고 수익을 제외한 올 한해 수입에서 미국 프로스포츠 스타 중 2위에 올랐다.

세플러는 지난 2일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번 시즌 7승을 거둬 공식 상금 2922만8357달러를 벌어들였다. 여기에 투어 챔피언십 보너스 상금 2500만 달러와 컴캐스트 보너스 상금 800만 달러를 합치면 올해 상금 수입은 6230만 달러(약 833억원)에 달한다.

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3일 세플러의 올해 상금액은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다음으로 높은 수입이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2024시즌 다저스와 10년간 7억 달러라는 초특급 계약을 맺어 올해 연봉은 7000만 달러다. 하지만 오타니는 연봉 7000만 달러 중 6800만 달러를 10년 뒤에 나눠 받기로 해 실제로 올해 받는 연봉은 200만 달러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인 저스틴 벨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맥스 셔저(텍사스 레인저스)는 각각 4330만 달러였고, 야수 중 최고 연봉은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의 4000만 달러였다.

올해 세플러와 비슷한 수익을 올린 선수는 자동차 경주 포플러 윈(F1)의 막스 페르스타펜으로 5500만 달러를 벌었다. /연합뉴스

